

하고 싶은 걸 찾아서...진로탐색에 1년 쓰는 덴마크 학생들



1 프롤로그

'학생 주도형 교육' 독일 프로젝트 수업 직접 진행 교사는 조력자 역할

'개인 맞춤형 학습' 핀란드 공모전 통해 학습공간 조성 '무학년제' 조별 수업

1 덴마크 헬러럽 종합학교 내부. 5단 책꽂이로 조성된 독립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

'사교육 청정국가' 덴마크 고교 진학 전 예체능·사회활동 '에프터스콜레' 253곳이나



독일 캠퍼스 클라렌탈 학교에서 눕거나 엎드리는 등 가장 편안한 자세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독일 비스바덴=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54개·전남 88개 혁신학교 2011년부터 운영 북유럽 교육 접목 시도에도 획일적 수업 방식 여전

학교 맞아? 최근 찾아간 핀란드·덴마크·독일 학교는 달랐다. 기억(-)자형이나 일(-)자형 건물 배치에 내도 반듯한 교실, 길게 늘어진 복도, 같은 크기와 색깔의 책상과 의자, 칠판까지 똑같은 우리 중·고등학교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일 찾아간 핀란드 헬싱키 라포카르타노 종합학교(Latokartanon Peruskoulu)는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건축 공모전까지 거쳤다. 5일 방문한 핀란드 야르벤빠(Jarvenpaan Lukio) 고교는 각이진 직선 대신, 3층 건물을 방사형으로 부드럽게 설계했다. 각 층에서 다른 층을 볼 수 있어 개방감이 두드러지고 층마다 주제별 학습공간이 나뉘어 있다.

덴마크도 비슷했다. 지난 6일 둘러본 헬러럽(Hellerup skolen) 종합학교는 교실로 들어가는 문이 없고 벽을 찾아볼 수 없다. 5단 책꽂이가 독립된 공간이 되는가 하면, 팔각형 구조물은 교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건물 중앙에 마련된 넓은 계단형 공간은 교실로, 독서실로, 1·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으로도 사용된다. 계단의 한쪽은 극장의 벽으로 이어지고 건너보면 목공소로, 다른 구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공간만 생소하게 아니다.

핀란드 라포카르타노 학생들은 '무학년제' 시스템에 따라 수업을 받는다. 1~9학년(만 7~16세)까지 연령이 다른 학생들이 소규모 그룹에 속해 졸업할 때까지 함께 교육을 받는다. 개인 맞춤형 학습을 중요시하는 만큼 학년이 시작될 때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생 수준에 맞는 1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따지는 평가 방식이다.

덴마크 헬러럽 학교도 3학년과 6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고학년도 저학년과 배우기도 한다. 옆자리 친구와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야르벤빠 고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 300개 과정 중 필수(47~51개)를 제외한 졸업(75개 과정)에 필요한 나머지 과정을 본인 스스로 선호도,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지난 8일 방문한 '캠퍼스 클라렌탈'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교사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조력자 역할에 더 가깝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헬러럽 종합학교는 속제가 없다. 교과서도 학교에서만 보도록 하고 2시면 집으로 간다. 사교육도 없다.

또 덴마크 링스테드 시 스코보 에프터스콜레(Skovbo Efterskole)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 곳에서 고교 진학 전 1년 간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가능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스포츠·미디어·음악·연극 등 4개 분야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다른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미래 자신이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셈이다. 덴마크에만 이런 학생들을 위한 253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떨까. 북유럽 교육방식이 소개되면서 접목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잇따랐다.

1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 야간자율 학습은 여태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기는 커녕,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래 희망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혁신학교는 이러한 교육 개혁의 바람을 타고 등장했다. 지난 2009년 성직지향·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내걸고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올해로 8년째다.

광주에서는 2011년 4곳이 지정된 뒤 2017년 현재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15곳, 고교 4곳, 특수학교 3곳 등 54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전남에서도 무지개학교라는 이름으로 2011년 30개교가 지정된 뒤 현재 88개교(유1, 초 64, 중 2, 고 3)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다양한 명칭의 혁신학교가 운영중이다.

하지만 운영 성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혁신학교의 긍정적 교육 정책도 확산세가 다디기만 하다.

교육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혁신학교 사례를 살펴보고 유럽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열 | 모집학과 | 수시 | 정시 |
|----|-----------|----|----|
| 인문 | 신학과 | 28 | 18 |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3 | 1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26 | 2 |
| 사범 | 유아교육과 | 8 | 2 |
| 예능 | 음악학과 | 10 | 5 |
| | 실용음악학과 | 15 |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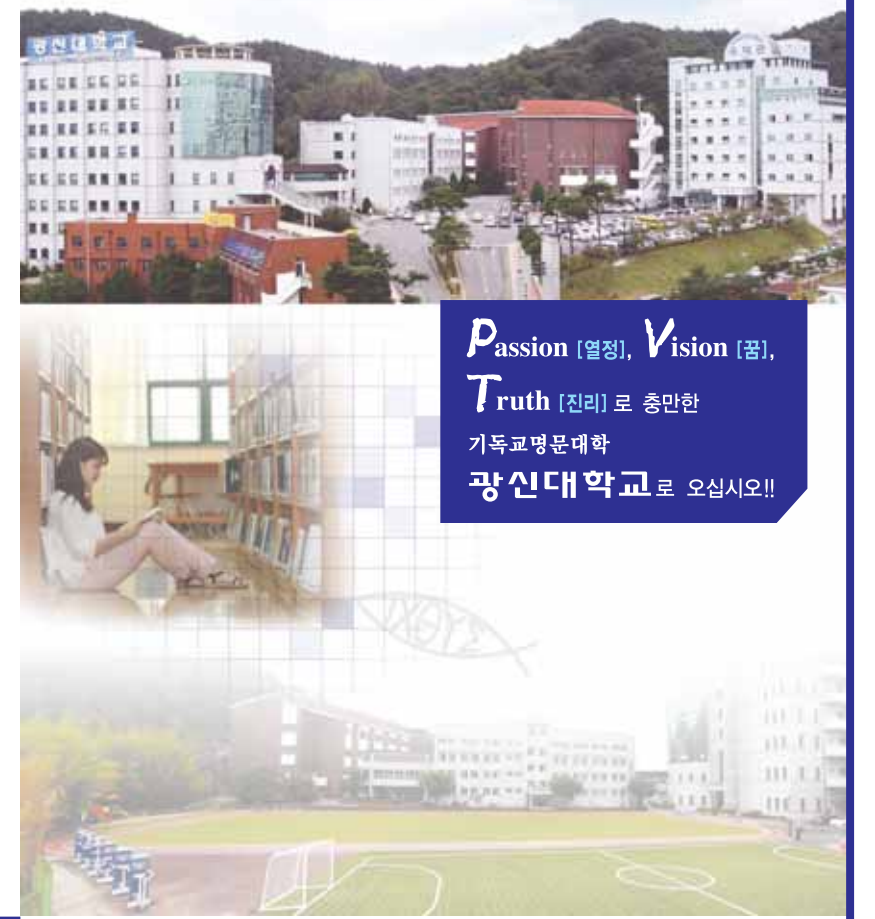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 |
| | | 신학과(Ph.D.) | ○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 |
| | | 신학과(Th.M.) | ○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유아교육학과(M.Ed.) | ○ |
| |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 |
| | | 통합예술치료학과(M.A.) | ○ |
| 음악대학원 |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 ○ |
| | | 평생교육학과(M.Ed.) | ○ |
| 음악대학원 | 석사 | 한국어교육학과(M.A.) | ○ |
| | | 음악학과(M.A.) | ○ |
| | | 실용음악학과(M.A.) |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